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Petrobras readies new \$1bn tender for giant Brazil pre-salt development

브라질의 Petrobras가 Buzios 유전 개발을 위해 10억달러 규모의 공사 입찰을 시작했다고 보도됨. Petrobras의 유전 개발 의지가 확고함에 따라 최근 발주 확인 된 P-78 FPSO 외에도 국내 대우조선해양이 참여중인 P-79 FPSO 건도 곧 계약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됨. (Upstream)

Newbuilding talks stall as spiralling steel plate costs hit shipyards

후판가가 너무 치솟아서 조선업체들이 부득이 건조 상담을 일시 중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보도됨. 일부 조선업체들은 앞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 선가 상승 조정 조항을 넣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많은 선주들이 이런 제안에 거부감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보도됨. (TradeWinds)

신조선장 증장기 호황 지속 전망

영국 조선해운 전문가 Clarksons에 따르면, COVID-19 팬데믹 영향으로 2020년 글로벌 선박 신조 발주는 침체했으나 2021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진입해 2023~31년까지 연평균 발주량이 202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증장기 호황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보도됨. (선박뉴스)

일본 조선업계 즐거운 비명

한국 중국 조선업체가 컨테이너선을 대량 수주하고 있는 데 비해 일본은 벌크선을 대량으로 수주하고 있다고 보도됨. 현재 울트라막스와 캄사르막스를 비롯하여 40척을 수주했다고 보도됨. 선주들은 대부분 일본선사로 알려짐. (선박뉴스)

현대로템, 이집트 생산공장 설립 검토...수에즈운하 철도사업 정조준

현대로템이 러시아·캐나다 철도사업 업체들과 이집트에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됨. 이집트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수에즈운하 철도사업 수주를 위한 전초기지를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라고 보도됨. 앞서 현대로템은 NERIC과 이집트 교통기획·경제개발부 등과 현지특수목적법인 MOU를 체결한 바 있음. (더그루)

LIG넥스원, 국내 최대규모 수소연료전지 기반 수송드론 개발한다

LIG넥스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인 '자동비행과 원격조정 비행이 가능한 수소연료전지 기반 탑재중량 200kg급 카고 드론 기술 개발'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보도됨. 5년간 총사업비 443억원을 투입하여 개발을 진행하며 국비 230억원, 지방비 8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연구개발 프로젝트로 알려짐. (이데일리)